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1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p>성소를 위한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12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4/19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4/26	유 요한	이 바오로	성인복사
5/3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4/5	\$ 330.00	\$125.00	\$ 620.00

*사순봉헌: \$475.0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성모의 밤: 5/24 (주일)

말씀의 이삭

기도와 자신감

김현정 소화데레사 | 배우·화가

“나는 누구일까?” 한번쯤은 누구나 스스로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성체조배를 하는 가운데 수첩을 꺼내 생각나는대로 빼곡히 적어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우’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첩에 적힌 단어들을 긍정, 부정, 희망, 절망 등으로 분류해 봅니다. 엉뚱하게도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몸담았던 연예기획사를 나온 일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획사였습니다. 당시에는 기획사를 배우가 연예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배우가 기획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결심한 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신앙인 ‘소화데레사’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간구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면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 연예인 이란 예쁜 포장지를 벗겨야 했습니다. 저의 연기를 통해 행복을 느꼈다는 팬들의 격려의 말만을 가슴에 담은 채로, 배우로서 누렸던 존재감과 특혜를 버리고자 했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집착을 놓고, 그동안 연기하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참아왔던 분노와 절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기획사 없이 1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맨발로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도움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극을 할 때는 처음으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를 했고, 미술공부를 할 때는 몇 년을 도서관과 작업실에서 보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전보다 어려웠지만, 의외로 감사할 일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람들로 부터 소외됐다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배우가 갑자기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어린 예수님 손안에 있는 작은 공’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놀다가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두어도 좋을 그런 장난감’으로 비유한 성녀 소화 데레사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소구역 공동체 모임: 4/12 (주일)

봄 하미이카 축제일정(4/19)관계로, 4 월 12 일 (주일) 소공동체 구역모임이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한인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4/14 (화) 저녁 8 시

4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모임은, 둘째 목요일인 4 월 14 일(화)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봄 하미이카 축제: 4/19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봄 하미이카 축제가 4 월 19 일 (주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를 위한 물품(포크, 수저, 접시, 물, 컵 등) 후원을 받습니다. 매주 주일 영어미사 뒤에 물품을 수거하고, 본인이 성당사무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4 월 친교모임 일정: 4/26 (주일) 오후 5 시

4 월 한인 공동체 친교를 위한 저녁모임은, 4 월 26 일 (주일) 오후 5 시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모든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 제 본연의 모습과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얼룩진 상처는 어느새 감사와 사랑의 열매로 변했습니다.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던 지인들도 이제는 저에게서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느님은 누구신가?” 세례를 받고 삶의 고비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세례와 함께 새로운 고생문이 열렸다고도 말합니다. 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서울주보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전념하는 영혼의 몰입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기도도 더 잘하게 됩니다.
- 복자 샤를 드 푸코 -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